

교회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충현

발행인 : 신성중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FAX :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2:11)

신성중 담임목사 위임식 거행

12월 23일 오후 7시 본 교회당에서

본 교회 신성중 담임목사의 위임식 예배가 오는 12월 23일(월) 오후 7시 본교회당에서 거행된다.

당회는 지난 12월 8일 임시당회를 열어 수도노회에 본 교회 위임목사 청빙서를 제출하고, 위임예배 날짜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수도노회는 임시노회를 오는 12월 20일(금) 오후 2시 충현교회당에서 개최하여 충현교회 당회가 청원한 신성중 목사 위임식 예배를 결정케 되며, 법절차에 따라 모든 순서를 진행하게 된다.

위임식 준비위원회 구성

준비위원장에 윤명식 장로

당회는 신성중 목사 위임식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별로 철저한 준비와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직을 완료하였다.

준비위원회 조직 및 책임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준비위원장:윤명식 장로

기획 및 진행분과 분과장:정하우 장로 지도:이조웅, 김용기, 김희수, 김태준 목사 위원:김영삼, 오태희 김차생, 노광현, 이병학, 하대선, 서동석, 이종국 장로

예배분과 분과장:김은호 장로 지도:윤용규, 송태근, 김학진, 김양홍 목사 위원:김방진, 우기전, 손동운, 이훈, 강모용, 박인세, 정운석, 송환장, 차진득, 김천재, 이창호, 박영식, 이종석, 윤성철 장로

재정분과 분과장:김영개 장로 지도:김성운, 정기봉 목사 위원:이태규, 최대원, 김영길, 박관영, 김광남 장로

홍보분과 분과장:손경수 장로 지도:김창수, 홍창민, 조동원 목사 위원:안익태, 박승준, 송기홍, 남

선우, 박용삼, 김중구, 최무길, 윤광일 장로

차량분과 분과장:박치민 장로 지도:안경소 목사 위원:문홍구 장로, 차량관리부 전원

영접분과 분과장:오진국 장로 지도:김해규, 김찬곤 목사 위원:김경철, 마성락, 서일영, 최상규, 정광호, 오정현 장로

섭외 및 안내분과 분과장:조선근 장로, 마리아전도회 연합회 회장 지도:최인근, 심길용, 이홍성, 장경철, 이병각 목사 위원:김의철, 강순용, 고병욱, 윤인현, 엄필성, 강은원, 최성현, 조인재, 김재균, 김재명 장로, 전도사 전원, 마리아전도회 각 지회장

접수·선물분과 분과장:임봉남 집사 지도:신표근, 김광국 목사 위원:안수집사 전원

카메라 촛점



▲지난 11월 29일 김창인 원로목사의 생신을 맞이하여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성도들이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제17교구 송년의 밤 성료

제17교구는 지난 12월 오후 6시 30분 만나홀에서 91년 가족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200명의 교구 가족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교구장 박치민 장로의 사회로 1부 예배를 진행, 문홍심을 결집한 송년의 밤은 추첨권 구 장로의 기도,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 후

"사랑의 완전성은?"이란 제목으로 이홍성 목사가 설교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약 3시간 30분 동안 은혜롭게 금년 한 해를 돌아보고, 92년 새 해의 결심을 결집한 송년의 밤은 추첨권 행사로 막을 내렸다.

제2교구 '91 가족 큰 잔치

한 해를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저녁 종소리를 들으며 분주하던 한 날의 일손을 거두고 고개 숙여 두 손을 모은 경건한 농부의 모습으로 91년도의 남은 날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지난 일들을 돌아보고 그것을 새 일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는 것입니다.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12월 19일(목) 저녁 6시 30분
- 장소: 만나홀(선교관 지하 1층)

제2교구장 이창호 장로

제15교구 '91 교제의 밤

20세기에는 3대 흥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책임과 성실의 흥년이요 사명적인 삶의 흥년이요 사랑과 교제의 흥년입니다.

우리 15교구는 20세기의 흥년 중 하나인 사랑과 교제의 흥년을 극복하고 초대 교회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15교구 '91 교제의 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15교구의 모든 성도들은 사랑과 교제의 불씨를 받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12월 19일(목) 저녁 7시
- 장소: 메추라기홀(선교관 지하 2층)

제15교구장 박관영 장로

제4교구 모임

참석범위: 지역 일꾼 전원(목사, 전도사, 장로, 구역장, 구역권관)

일시: 12월 17일(화) 오후 7시
장소: 만나홀

예배 및 행사
비디오 테이프 판매

● 내용:

1. 주일 설교
 2. 제1회 충현찬양합창제
- 가격: 8천원
 - 구입처: 태이프로프샵

10일 서송원충현교회 헌당

우리 교회는 서송원충현교회(현 춘화 전도사 시무) 헌당예배를 지난 12월 10일 오후 2시에 드렸다.

우기전 장로의 사회와 송태근 목사의 기도예로 이어 신성중 담임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아름다운 지역에 교회를 설립, 헌당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세우

는 자의 수고와 파수꾼의 경성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예배를 마친 후 헌당을 축하하기 위하여 함께 내려간 35명의 전도위원 및 전도회원들은 그곳 성도 및 주민들과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다.



충현프리즘

◎...연말이 다가오면서 교회 산하 각 교구가 교구 모임을 갖고 있다. 이미 제1교구와 제16교구, 제17교구는 가족 모임, 송년 모임을 가졌으며 앞으로 계속 교구별로 모임을 갖게 된다.

지난 한 해를 회고하면서, 그리고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홀로되었던 교구 식구들을 위로하

고, 단합된 의지로 92년 새 해를 맞아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 교구 모임은 자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교구장을 비롯한 지도 교역자, 교구협의회 임원들이 힘을 모아 재원을 충당하고 참여한 교구 식구들에게 식사와 기념품까지 제공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

정말 흐뭇한 일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매주일 본당 강단 위의 꽃꽂이를 볼 때마다 상쾌한 기분이 든다. 철따라, 주일따라 변화무쌍하게 장식되는 꽃꽂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강단의 공간을 아름답게 펼쳐 보인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강단 꽃꽂이를 봉사하는 분이 계시는데, 김석순 집사와 백영희 집사이다. 이들의 꽃 같은 마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우리 교회 교인 동원 비상 연락망에 상당히 잘되어 있어 교회 행사와 봉사할 일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지난 9월 소집되었던 오후 8시 행사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본당 아랫층을 가득 메울 정도로 교인들이 나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실감케 했다.



충현강단

하나님의 구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엡2:8~16)

1.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에서는 과거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족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엡2:3).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또 한 경우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의하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건할 때와 이웃을 향하여 불경건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공황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엡2:4~6).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노아 시대에 임했던 홍수 심판이 다시 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화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는 중생케 해주심으로, 둘째는 부활시켜주심으로, 셋째는 영화롭게 해주심으로 그 공화를 나타내보이셨습니다. 이러한 공화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공화를 베풀어주셨습니까? 그것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엡2:7).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공화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공화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들의 입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들에 의해 나타납니다. 착하고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의 칭찬감이 되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욕을 먹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랑을 베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정직하고 다르구나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2. 더 큰 것을 바라보라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어떤 일로 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서 헤어 나오기 위해서는 더 큰 것을 바라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용돈 3만원을 소매치기 당했는데 그날 주택복권 1억원짜리가 당첨되었다면 그 3만원은 아무런 괴로움이나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얻은 것이 잃은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나온 의학 통계에 따르면, 여러 종류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내란이 발생하자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와같이 큰 두려움은 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공황이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작은 문제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들로 하여금 공화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3. 구원의 방법

구원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2:8)

구원이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이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영어로 “호의, 호감”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 대해 무조건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은 선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좋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호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에서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와 믿음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게 될 때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10:17)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연구하게 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씨를 뿌려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씨앗을 뿌리면 아무리 거름을 주어도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성령께서 마음속에 살아 있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쳐도 안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다 뿌렸다 할지라도 거기에 거름과 물을 주지 않고 김매기를 하지 않으면 자라기는 자라도 조금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습니까? 거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많은 수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

로 기도라는 물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름을 주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요한 칼빈은 은혜를 증시하였고, 마르틴 루터나 요한 웨슬리는 믿음을 증시하였습니다. 믿음은 직접적인 것이고 은혜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성경을 주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책을 손으로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믿음이라는 손으로 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믿음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믿음의 씨앗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보다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란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4. 구원의 목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엡2:9)

우리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혀 우리들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다고 하여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5. 구원의 결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2:10)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해야 할 일이 선한 일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6. 결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첫째는, 믿음의 반응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주셨고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합니다. 찬송은 바로 감사의 연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찬송을 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남은 여생 동안 봉사로 일관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의 응답, 감사와 찬송, 헌신된 봉사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곳곳에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연주하는 것이 관례가 된 듯하다. 기쁜 성탄절에 음악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작품 중의 하나인 “메시아”를 연주하면서 신앙적인 의미를 깊이 음미해보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크나큰 기쁨이요, 감동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아멘찬양대는 금년도 성탄절 음악예배에 “메시아”를 연주하기로 결정하고 심혈을 기울여 연습하고 있으며 12월 22일 주일 저녁에 드리는 성탄 축하 음악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

“메시아”의 전곡은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주 시간은 약 2시간 20분이 소요된다. 이번 연주는 본격적인 음악 연주회가 아니라,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드리는 음악예배인 관계로 전곡을 다 연주하지 않고 성탄절과 관계 있는 제1부 “예언과 탄생”만을 연주한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의 독창자가 서창과 영창을 노래하고 아멘찬양대가 합창을 담당하며 충현오케스트라와 오르간이 반주를 맡게 된다.

이번에 연주되는 “메시아”는 헨델이 작곡한 후 근 250년이 지난 동안 음악 애호가들의 마음 한 가운데서 항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명곡이다. “메시아”는 그의 다른 작품들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대중의 풍부한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종교적인 감흥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그 주된 요인은 음악의 웅장함과 그 명료성에 있다고 하겠다. 베토벤은 “메시아”를 듣고 평하기를 “헨델은 단순한 소재로 웅

충현논단

“메시아”를 연주하면서

이관섭 집사(천안감독·아멘찬양대 지휘)

장한 효과를 얻어내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작곡가다.”라고 하였으며, 하이든은 헨델을 가리켜 “그는 우리 모두의 스승이다.”라고 극찬하였다. 그런데 헨델은 이러한 논평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던 불후의 명작인 “메시아”를 불과 24일만에 작곡하였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헨델은 교회 음악의 대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하와 같은 해에 독일에서 태어났다.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바하에 비하여 매우 활동적이고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조국인 독일을 떠나 영국으로 귀화하여 그곳에서 창작 활동을 하였으나 계속된 작품의 실패로 절망 상태에 빠져 실의의 늪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자신 음악단체인 필하모니협회에서 자선음악회를 위한 신작을 의뢰해 왔으므로 헨델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좋은 작품을 쓰겠다는 결심하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친구인 제닝스가 성서를 바탕으로 완성해 놓은 대본을 보고 바로 이것이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작곡하기 시작하였다. 그때가 1741년, 그의 나이 57세때였다. 8월 22일에 작곡을 시작한 그는 6일만에 100페이지에 달하는 제1부 “예언과 탄생”을 완성하였고, 9월 6일에는 107페이지에 이르는 제2부 “수난과 속죄”를 완성했다. 9월 12일에는 총 259페이지에 달하는 작품 전체의 초고를 끝낸 뒤에 반주 부분을 첨가하면서 원고를 재검토하

여 9월 14일에 최종적으로 작품을 완성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헨델이 “메시아”를 작곡하는 기간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대화와 깊은 신앙으로 특별한 영감을 얻어 침식을 잊은 채 작품을 썼다고 한다.

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모두 53곡으로 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프랑스 형식의 서곡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시작된다.

제닝스가 쓴 “메시아”의 가사는 모두 성경에서 80절을 인용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사와와 시편에서 37절, 복음서에서 10절, 예레미야와 욥기에서 10절,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7절, 그외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하였다. 그 내용의 성서적 근거를 살펴보면 제1부 “예언과 탄생”은 이사와, 학개, 말라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제2부 “수난과 속죄”는 이사와, 예레미야, 로마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제3부 “부활과 영생”은 욥기, 고린도전서, 로마서, 요한계시록에서 대본을 인용하였다.

이번 연주에서 소프라노 영창인 “기뻐하라 시온의 딸아”가 끝난 후에 제2부의 끝곡인 유명한 “할렐루야” 합창을 부름으로 음악 순서의 끝을 맺게 된다. “할렐루야” 합창은 “메시아”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합창곡일 뿐만 아니라 구세주의 승리를 드높이 노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우 장엄한 곡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에 넣었

다.

“할렐루야” 합창곡은 세 소절의 전주가 있는 후에 전체가 힘차게 합창하게 되는데 이는 처음부터 예리한 리듬의 빛나는 동기와 합창의 집단적인 다사로운 육성의 효과를 매우 놀랍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할렐루야”라는 경쾌한 패턴이 거듭 반복하여 압축되면서 역동적으로 상승한 뒤에 악상이 품위 있게 다른 분위기로 바뀌면서 힘찬 유니슨으로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가 불려진다. 이 주제는 하나의 안정된 아치형의 선율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의 명쾌한 표현력은 그 어디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안정되어 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라는 주제와 “할렐루야”라는 동기가 전후 관계를 이루면서 전개된 다음에 대위법적으로 결합되어 두 개의 푸가가 형성된다. 소프라노가 높은 소리로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라고 노래하면 테너가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화답한다. 이어서 할렐루야의 예리한 동기는 각 성부에 엇갈리면서 파도치게 되고 그 위에 굵은 선의 아치가 겹쳐지면서 진행된다. 이 웅대한 작곡 기법은 헨델 특유의 창의성이라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부드러운 코랄풍의 “이 세상 나라들...”로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이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음악적인 효과이다. 헨델은 대위법적인 폴리포니 작곡법을 여러모로 활용하였으나 다이내믹한 역동감을 조성할 때에 결코

난해한 방법을 쓰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하고 간결한 구성을 이룩하는데 주력하였다. “할렐루야”와 “전능의 주”라는 두 개의 동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따로따로 집요하게 서로 반복시키면서 제시한 다음에 비로소 2중 푸가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도 푸가의 제시 부만을 제시할 뿐 그 이상의 난해한 전개를 취하려 하지 않았다. 또한 대조적인 효과를 기교적으로 활용하여 심리적인 긴장과 양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데 노력하였다.

“메시아”의 초연은 1742년 4월 13일 영국의 더블린에서 자선 음악회로 헨델 자신이 직접 지휘하여 그 수익금을 모두 현지의 병원 환자들과 감옥수들의 구호금으로 회사하였다. 그 후 런던에서의 공연은 1743년 3월 23일에 코벤트 가든에서 황제 조지 2세의 임석하에 연주되었는데, 할렐루야 합창이 시작되자 황제가 너무나 감격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음악적인 감동에 경의를 표하였다. 이때 청중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창이 끝날 때까지 경청하였는데, 그 후부터 “할렐루야” 합창이 울려 퍼지면 청중들이 모두 기립하여 감상하는 관례가 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감동적인 “메시아”를 금년 성탄절에 아멘찬양대가 연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현의 온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되어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장로칼럼

지혜로운 시간 계수



고병욱 장로
(충현기도원 관리)

연말연시를 맞을 때마다 지나온 일년을 반성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계획을 세워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1990년말에 1991년을 앞에 놓고 전례와 변함 없이 지난 1년을 회상하면서 깊은 회개와 눈 앞에 다가오는 새해를 높은 이상을 품고 설계하였다. 그러나 1992년이 눈 앞에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지나온 과거와 다름 없이 깊은 사려에 잠기지 않을 수 없다. 연초 계획한 것을 얼마나 실천하였는지 평가해볼 때 그 평가의 점수가 50점 이상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온 시간을 계수하면 70년인데 철이 없던 20년을 공제하면 50년 동안은 앞에서 말한 것과같이 송구영신 때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로운 계획과 결심을 해왔었다. 그러나 50년의 반인 25년이라도 계획대

로 실천하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으니 진실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고 눈물을 쏟으며 다시 한번 철저한 회개와 굳은 다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근대 지구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 즉 국가간의 전쟁, 민족간의 전쟁, 불완전한 인간 지혜로 개발된 핵무기로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 지역에 따라 심한 기근과 지진, 인간 심리의 잔학성 등의 인면수심(人面獸心)적인 사건들과 교계의 인면수심에 해당하는 성면마심(聖面魔心)의 추태스러운 일들이 항다반사(恒茶飯事)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지혜로운 시간 계수를 할 수 있는 성도는 제림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오셨는지 추리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10년 전 깊은 안개가 서린 늦은 가을 어느날 아침, 직장에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체험한 일이다. 차내에서는 차창에 낀 서리 때문에 밖을 볼 수가 없어서 주행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 없었다. 마침 승차차 하는 순간에 밖을 내다보니 큰 은행나무가 보여 매일 왕래하는 노선이라 어디까지 왔는지 그 위치를 즉각 파악할 수 있었다.

1991년이 3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내 머리를 툭 치는 것과 같은 충격으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물음의 음성도 들려오는 것 같고,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따랐느냐?” 하는 책망의 어조가 들려오는 것도

같고, “1992년부터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루에 기도 몇 번씩 할 것이며 말씀은 몇 장씩이나 읽을 계획인가?” 하는 질문도 하시는 것 같은 감상을 버릴 수가 없다.

20여년 전에 항간에 떠돌던 말이 생각한다. 구라파에서는 오래 전에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 같고, 미국에서는 방금 전에 떠나신 것 같고, 한국에서는 기다렸던 주님께서 지금 막 도착하신 것 같은 상황이라고 표현한 말이 있었다. 이 말을 연상해보면, 오늘날 주일에 교회에 가보면 기독교인이 많은 것 같은데 시장이나 복잡한 역광장이나 길거리 등지에서는 기독교인을 만났다가 상당히 어렵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다.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면 말과 행동과 인성에서 기독교인의 형상이 나타나야 할 텐데, 요즘은 예수 “쟁이”란 말을 듣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쟁이”란 말은 전문가라는 뜻인데 아직도 바른 예수 “쟁이”가 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의 품성의 표증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시간의 계수를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착오 없이 판단하여 예수님 오시는 때와 장소가 언제, 어디든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생활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오늘의 한국 기독교인을 분류하면 순진파, 회의파, 몽매파, 절망파 등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 자신은 어느 파에 속하는지 자문자답하는 이번 송구영신이 되기를 바란다.

다음호 칼럼은 김천재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진국맛을 계속 보게 되길...

이요섭 집사(제7교구·초등6부 교사)

얼마 전 서울에서 두어 시간 내려가서 장호원, 이천, 여주 일대의 산을 헤매게 되었다. 산 위에 있었기 때문인지 맑은 날인데도 오후 4시가 지나도록 점심 식사 해결을 못하여 속이 비어 있으니까 더 한층 으슬으슬해졌다. 결국 소름이 끼칠 듯이 한기가 더해져서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워졌다.

공원 관리소를 찾아가서 추위를 녹여주기를 부탁드렸더니 기름난로를 달구어 몸을 쪼이도록 친절을 베풀어주셨다. 그런데도 덜덜 떨리던 몸이 달달거릴 만큼은 누구리지게 되었으나 더 이상은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주변쪽에서 고기 내음이 풍기더니 잠시 후 입맛 당기는 국 그릇과 하얀 미밥이 식탁에 놓여졌다. 국에 밥을 말아 한 술 떠서 넘기니 식도를 따라 배 속까지 훈훈해져서 추위가 단숨에 사라져버렸다. 그 국맛이 진짜 진국맛이어서 모두들 두, 세 그릇씩 푹딱 먹어 치울 정도였다. 또

내기 손님을 상대로 하는 역전 식당이나 예식장 손님을 전적으로 받는 식당의 국맛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았다.

물을 타지 않은 순액의 국물을 진국이라고 하며, 깊이 상종해보기 전에는 속마음을 파악할 수 없는, 오직 체세술로 인간 관계를 유지해가는 세상 때가 긴 피 많은 사람에 비하여 언행이 참된 순수한 봉사자를 일컬어서 진국이라고 한다(국어사전 참조).

교회학교에서 봉사하시는 교사들 가운데서 자칭 "교사 초년생"이라면서 어려워하고, 지도 방침에 잘 따르고 협력하며,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철저히 하면서 어린이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 앞에서 동료 교사로서 고개가 숙여지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예수

님께서도 참으로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연말이 가까워지면 엉뚱하게도 "금년말까지는 최선을 다하여 맡은 일을 감당하겠으나 자신이 너무 부족하여 내년에는 교사직을 사양해야 하겠다."는 얘기를 흘리는 분들이 꼭 있다. 가만히 살펴보면 순수하고, 열심이고, 적극적이고, 사랑이 많아서서 부서장께서 아끼고 필요로 하며 동료들이 함께 손잡고 일하기를 바라고,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이라면서 호감을 갖고 있던데 어찌하여 "새해부터는 예배만 드리고 봉사하는 일에는 손을 떼야겠다."고 하며, 또는 "심령에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조용히 자신을 보살피고 배우고 가꾸어서 성숙된 후 봉사하겠으니 쉴 수 있게 허락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등 섭섭한 소리를 하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인간적으로유능한 사람, 세상에서 알려진 유명한 사람을 찾아서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무명들을 불러 귀하게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일진대, 자신을 너무 비하시켜서 일을 맡지 않으려고 하고 뺑소니치는 것은 교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왜 뒷걸을 질하여 한 마음으로 섬기던 봉사자들에게 의욕을 잃도록 설득력 없는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지.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잖나?"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허여말건 국물이 얻

질러졌다면 진국에 물을 좀 더 부어 조미료를 타서 몇 그릇 더 만들어 내어 놓으면 될 일지만 진국, 즉 원액이 앞질러지면 탕장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오염되지 않은 생수와 같은 심령을 가진 총현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에서는 여러 성도들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즈음, 여러분의 참여와 봉사로 내 주변 지역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진국맛을 보여주시던 봉사자들에게서는 성령의 불로 더욱 고아져서 감칠 맛을 내게 하는 진국, 영양도 듬뿍 들어 있는 진액의 국이 되어,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을 위하여 더 한층 빛날 삶을 살아 하나님과 여러 교인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지난호에서 계속)

◆장년2부

박정태, 강희창, 이석영, 문광석, 안성영, 한만교, 박호용, 이철화, 안병호, 소재철, 김영록, 장영환, 이영일, 황현철, 전계식, 조종광, 양운섭, 이순자, 유효순, 이경자, 서영남, 김영환, 장정훈, 정영남, 박영숙, 변옥희, 황종임, 최영득, 이은옥, 박춘옥, 채혜선, 김숙희, 신소자, 신수옥, 안춘자, 김숙자, 안태숙, 전명옥, 한숙원, 윤정식, 양명자, 최영애, 정경혜, 김재순, 조종선, 정순이, 한정희

◆장년3부

김점석, 이병옥, 김용석, 이만기, 이근수, 이장하, 최성조, 김종연, 이상용, 강진택, 엄기정, 이명희, 최 규, 김춘지, 정경자, 신일순, 오덕희, 이윤영, 이인숙, 변성옥, 남수현, 김복임, 조귀남, 이원화, 조희순, 최봉숙, 안정희, 반정현, 김진만, 강경란, 전옥희, 김점순, 이정순, 김순동, 김동래, 윤옥자, 유영희, 김철도, 안소현, 변경희, 조동숙, 김현옥

◆장년4부

이계인, 양삼주, 오석부, 이병영, 김재홍, 김민재, 홍순교, 유장형, 박노봉, 정재복, 유정자, 박옥식, 조항숙, 조종원, 이연순, 변순복, 김효정, 안옥실, 한영숙, 이춘일, 장갑선, 윤정덕, 지숙원, 천병희, 전혜선, 임희순, 장성혜, 최정순, 장희수, 서양순, 필기복, 나현애, 강봉옥

◆소망부

1992년도 교회학교 교사 명단

고종복, 박두영, 박창근, 안노수, 오인근, 윤택성, 한일연, 권용동, 추병장, 허 오, 조철주, 유상태, 허형철, 이구연, 김경식, 김남조, 오동환, 김형종, 정유재, 조홍진, 김영호, 최태옥, 이종숙, 정문대, 장선자, 송형섭, 김영희, 박우순, 이상덕, 최경복, 정운순, 이영영, 라영실, 김숙기, 김준자, 박갑래, 임옥환, 이도영, 백인숙, 안정자, 유금순, 고정임, 유순녀, 김상인, 김영아, 김경순, 이경효, 조영숙, 박숙경, 오미자, 소재숙, 여증녀, 유병순, 이인경, 고남균, 홍기완, 이형숙, 장정자, 조영혜, 윤재춘, 조성남

◆새기정부

김정필, 이광국, 이산영, 최정길, 고건일, 이병석, 이경현, 한광숙, 주순희, 한은주, 신영순, 박일심, 서금자, 조경옥, 임희순

◆새기족부

정창길, 이달옥, 김해주, 김달현, 김문섭, 김용호, 이복규, 박남주, 이정래, 백제성, 이관옥, 임옥균, 이명종, 허판전, 이윤현, 최재호, 김영숙, 정희자, 윤수원, 임근예, 박영애, 조복득, 염수현, 박순옥, 이해수, 최이수, 이명자, 곽영자, 손숙자, 김순남, 이명숙, 홍경숙, 홍경선, 김은나, 김활분, 영경자, 장유진, 한명순, 김영희, 박영희, 해순자, 윤여진, 고순재, 김용래, 임신실, 문경자, 이학자

◆세례부

박철구, 김홍기, 김용도, 박종규, 진학래, 신정숙, 최윤정, 이윤자, 김영혜, 임선애, 김복희, 홍혜숙, 강봉옥

◆사랑부

오규창, 김창호, 고광국, 김복학, 김준호, 김춘민, 박태진, 최정남, 박순규, 정영민, 송태련, 황태섭, 전성옥, 변관재, 김종수, 천창철, 이하늘, 조종환, 한형식, 박광순, 유중요, 조웅진, 박재성, 공병남, 이재항, 김정연, 양영경, 이상희, 김순배, 최선자, 김윤희, 정은숙, 조우숙, 최정순, 길봉재, 오계분, 김성녀, 심영숙, 나종예, 민은정, 전행자, 전미숙, 나영실, 장명숙, 강기엽, 김순희, 심영순, 이정자, 홍은지, 조윤경, 지연희, 엄선자, 정호진, 염기자, 김경숙, 이영자, 차경숙, 한화선, 안명희, 홍승희, 김성희, 조순희, 한정은, 심진희, 김성금, 이현숙, 손홍숙, 김정임, 오후연, 한일경, 안설희, 이명희, 김은영, 고기순, 박희성, 김은희, 김공예, 장동숙

◆에바다부

이윤현, 김운환, 손기현, 허명호, 신상수, 이용렬, 이준우, 홍기준, 이호영, 유성열, 이정훈, 함용석, 김상희, 이명주, 김용환, 김영연, 임영숙, 이용희, 박은영, 박송이, 지성림, 김경매, 서명영, 오현경, 오순희, 노효영, 최정옥, 장경옥, 남영래, 김옥순, 김금남, 강현주, 이인숙

◆타아부

박홍운, 조종덕, 백종식, 김재춘, 이성현, 김준선, 이관호, 김의숙, 이남숙, 전정희, 이달순, 김희선, 이명자, 정미자, 신명자, 전숙영, 강정일, 김경희, 김점남, 신성자, 김호녀, 박귀순, 이음진, 전정자, 권필순, 김정순, 이정예, 박복동, 김재순, 조분자, 홍양래, 손옥희, 박금식, 나옥녀, 장현순, 조숙호, 박부미, 이옥순, 윤명순, 이귀례, 차명신, 홍영숙, 안숙자, 이강자, 김인실, 유남순, 신금순, 강재열, 방미숙, 하일상, 이현순, 공정자, 이원희, 유옥련, 김순자, 홍갑순, 강금자, 이봉순, 소복남, 김정순, 도승애, 유후자, 권영숙, 박춘금, 이 영, 이장분, 손연남, 성춘순, 남순자, 양명희, 박갑래, 이현주, 강석란, 강경란, 강성자, 김정란, 박명숙, 김한선, 나음진, 전부덕, 김 철, 주장애, 김혜은, 노 반, 최애순, 한영덕, 고명진, 장귀녀, 오수옥, 나승순, 정정희, 노희춘, 윤경숙, 김수자, 정진순, 박순옥, 김말선, 김중순, 정순덕, 정만자, 고암생, 유옥자, 신필식, 이영자, 하말영, 박미순, 서춘실, 김영옥, 백옥심, 김숙희, 서순식, 김경희, 배귀여, 김명희, 임근예, 노희선, 강영애, 안춘희, 표복심, 김복현, 김숙자, 신경호, 정영애, 장정숙, 임도화, 김순남, 이기애, 강옥희, 서택순, 송춘임, 송정옥, 박송금, 천현애, 조성옥, 양은숙, 이옥순, 김혜숙

◆영아예배부

정홍관, 김학기, 이선우, 이부성, 장충균, 이 홍, 권성애, 배복자, 이효성, 심선희, 조경백, 데이비드 김, 미세스 김

◆일어예배부

최승철, 김세홍, 임덕일, 송한천, 이진규, 전정우, 정우남, 박영신, 이경자, 현숙희, 김성순, 이석정, 구덕임

◆유아원

김혜은, 조영희, 송정은, 김경숙

◆유치원

홍성숙, 김한나, 장은미, 장민영, 채승혜

◆조기교육원

박일지, 김화기, 노연희, 김미정, 허은아, 변희심, 이강희, 주현주, 김남숙, 박해정, 유길향, 김미란, 윤영란

◆살롱경로대학

이인영, 이용현, 한호철, 한철면, 살롱동, 이명희, 조주자, 필기복, 김필래, 이복희, 서영남, 김한민, 최영애, 정은순, 이향숙, 최정희

직 원 모 집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 봉사할 직원을 다음과같이 모집합니다.

- 직종:음향담당
- 자격:세례교인
- 구비서류:당회장추천서, 이력서
- 문의:유영실(본당501호)